600년 역사 日 고찰, 지역 주민에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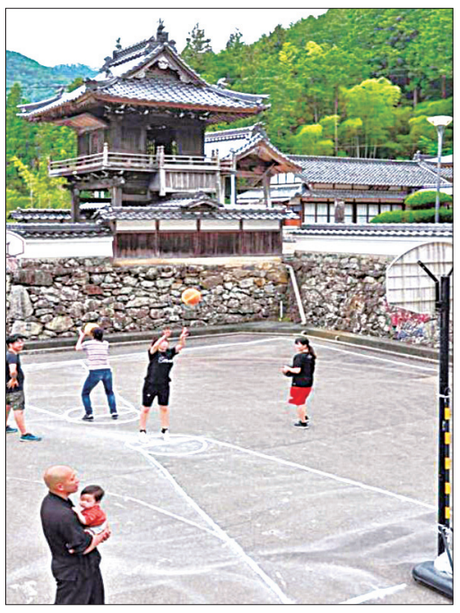
1441년 건립된 단바시 즈이운지
5년 전 청소년들에게 경내 개방
코로나19 때 야외장소 필요 통감
주차장에 탁구대 · 농구골대 설치
지역주민에 '만남의 장소'로 화제

박영빈 객원기자

등산로를 옆에 끼고 자리 잡은 고찰 즈이운지(瑞雲寺). 최근 경내 전각과 휴게시설을 비롯해 도량의 곳곳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면서 지역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3일 일본의 '코베신문'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녹아든 고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도했다.

효고현 단바시(丹波市)에 소재한 즈이운지는 조동종에 소속된 선찰로 1441년, 지역 토호가 당시 영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즈이운지는 사찰이 아닌 요새나 성벽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는 공법으로 지어져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고찰이다.

이러한 유서 깊은 도량이 지역주민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경내를 개방한 것은 약 5년 전의 일이다. 현 주지인 와타나베 슌묘 스님과 부주지인 소슌 스님은 "과거 사찰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놀이터로 이용됐다. 그러한 환경을 되살려 소중하게 전하고 싶다"며 개방을 결정한 계기를 전했다.


즈이운지에 만들어진 농구코트에서 노는 아이들.
사진출처=코베신문

가장 먼저 차고로 사용됐던 가건물을 정리하여 탁구대를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일부에 농구 골대를 직접 설치하여 농구 코트로 개조했다. 소슌 스님은 "명절이나 큰 법요 외에는 기본적으로 실제 주차되는 차가 몇 대 없는 부지"라며 농구 코트를 만들어도 도량을 운영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학창시절 학교나 동네를 불문하고 공 하나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농구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 농구 코트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밝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도량 개방시도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소슌 스님은 "시내에서 방과 후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고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대한 소중함을 통감했다"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문호를 더욱 넓혔다.

특히 즈이운지는 올해부터는 농구 자유투 대회를 시작했다. 경기 전에는 즈이운지의 스님들이 간단히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대회로 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즈이운지 측은 "행사의 공지와 절의 홍보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덕분에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귀성한 학생이나 인근 지역에까지 절이 알려지면서 '인연의 고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슌 스님은 이런 열기를 계속 밀고나가 앞으로는 댄스 대회, 음악 이벤트까지 폭넓게 경내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스님은 "미래를 담당하는 젊은 세대가 선인들이 지켜온 이 도량을 친근히 느끼고 또 새로운 연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역주민들과 젊은이들이 당연한 듯이 '절로 놀러간다'라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며 웃어 보였다.

달라이 라마 "中, 나와 대화 원한다"

인도 다람살라서 "중국 비공식 대화 의향 전달" 밝혀



달라이 라마<사진>가 최근 "중국이 대화 의향을 내비쳤다"고 발언해 티베트 불교에 대한 중국의 탄압이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달라이 라마와 타국의 만남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화해 기류는 어불성설이라는 관망도 나온다.

7월 10일 미국의소리방송 등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최근 중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 측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대화 의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달라이 라마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대화 의향을 밝혔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는 또 "중국이 티베트 인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인식했고, 나와 접촉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면서 "나는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달라이 라마의 말과는 달리 중국의 기류는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다. 중국은 7월 9일(현지시간)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와 미국 우즈라 자야(Uzra Zeya) 외교관이 만난 것을 두고 "어떤 외부 세력도 티베트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7월 10일 항의했다.

우즈라 자야는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에서 "티베트 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지속적 관심을 표하고 지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델리 주재 중국 대사관은 SNS를 통해 "중국은 외국 관리들과 티베트 독립군들의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달라이 라마는 결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중국 분리 활동에 참여하고 서장(티베트)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고 시도한 정치적 망명자"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티베트 망명 정부는 철저한 분리주의 정치 단체이자 중국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위반하는 불법 조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일 다람살라에서 8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달라이 라마는 두 살이 되던 1937년 환생을 검증하는 여러 시험을 통과한 끝에 달라이라마로 인정받았고 이듬해 공식 즉위했다. 이후 1950년 중국의 침공으로 티베트가 주권을 잃고, 1959년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봉기했다가 실패하자 인도로 탈출해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웠다. 1989년에는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티베트 스님, 세계평화 기원 2000km 오체투지 회향

지난해 10월 29일 부다가야 출발
9개월 여정 홀로 수레 끌며 순례

티베트에서 온 스님이 홀로 손수레를 끌며 9개월에 걸쳐 성도성지 부다가야에서 다람살라까지 2000km가 넘는 오체투지 순례를 회향해 화제다.

7월 5일 '자유 아시아 방송', 'VOA 티베트' 등의 외신들은 순례를 회향한 깰상땐진 스님의 여정과 인터뷰를 특별보도했다.

올해 세납 61세의 깰상땐진 스님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달라이라마의 거주지인 다람살라를 목표로 오체투지로 순례를 시작했다. 깰상 스님이 오체투지 순례에 나선 것은 2008년 이후 세 번째다.

스님은 2008년 동부티베트의 고향마을인 휘추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해 그해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에 도착했다. 이후 2014년엔 라싸에서 부다가야까지 오체투지로 순례했으며, 2017년에는 부다가야에서 네팔까지 약 483km를 도보로 순례했다. 6월 30일, 다람살라에 소재한 달라이라마의 직속사원인 남걜사원에서 순례를 회향한 스님은 수많은 불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회향기도를 마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스님은 "이 절을 올린 공덕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머물고, 중생들과 이 세계의 평화에 회향되길 바라는 것이 오직 나의 바람"이라며 감격에 겨운 눈물을 보였다.


9개월간 홀로 2천 km가 넘는 오체투지 순례를 마친 깰상 스님.
사진출처=자유 아시아 방송

깰상 스님은 세 번째 오체투지 순례를 나선 계기에 대해 "인도에 와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오체투지를 하는 공덕을 모두 세계평화와 모든 중생의 안녕,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오래 머무시는 데 회향하기로 발원하고 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침구와 식량, 생필품을 손수레에 싣고서 홀로 수레를 끌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9시에 절을 마치는 일정에서 스님은 "날씨가 좋을 때 하루에 약 8km를 걸었지만 가파른 길이나 악천후에는 그 절반정도만 나아갈 수 있었다. 평원에서는 수레를 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다람살라에 다 와서는 가파른 언덕길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며 어려웠던 여정을 회고했다.

7월 5일 오전, 스님의 바람에 따라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스님은 "달라이 라마를 뵙고 순례동안의 일을 말씀드렸다. 존자님의 치하에 모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다. 진정으로 모든 순례가 회향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지난 8개월 동안의 여정에서 나의 소식을 들은 티베트인, 인도인, 평범한 구경꾼들까지 많은 은혜를 입으며 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지원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8세기 사원, 10대 캐나다 소년 의해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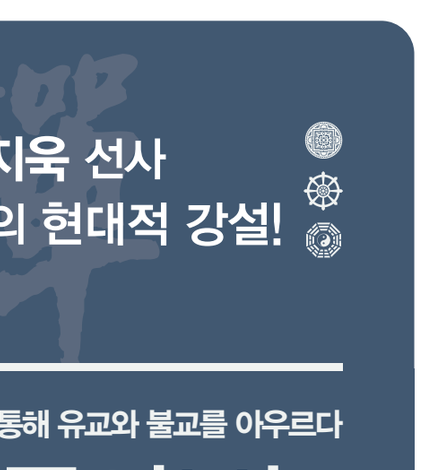
국보급 도쇼다이지 본당 기둥에 'Julian' 새겨

일본의 8세기 사원이 캐나다인 10대 관광객에 의해 일부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월 10일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혼슈 남쪽 나라시에 위치한 국보급 불교 사찰 도쇼다이지(Toshodaiji Temple)가 17세 캐나다인 소년에 의해 훼손됐다.<사진> 소년은 도쇼다이지 사원을 둘러보던 중 금당 기둥에 손톱으로 글자를 새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당은 일본 초기 불교 건축의 대표 양식으로 꼽혀 국보로 지정됐다. 소년은 지상으로부터 1.52m가량 높이에 'Julian'이라는 단어를 새겼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본인 관광객이 소년이 기둥을 파손하는 것을 보자마자 신고, 당국 경찰은 소년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심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으나 일본 문화재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현재는 돌려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쇼다이지에서 수행 중인 한 스님은 마이니치신문에 "소년이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015년에 나라시를 포함한 6개 현 불교 사찰에서 기물 파손 사건이 벌어졌다"며 "대부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또는 국보급 문화재였다"고 보도했다. 도쇼다이지는 759년 당(唐)나라 회남(淮南) 지방의 고승 간진다이시(鑑眞大師)에 의해 창건됐다. 남도 6종의 하나인 율종의 총본산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불법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승불교 입문서
입보리행론 요해
티베트불교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가장 정통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톡메 상뽀가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해설서이다.
톡메 상뽀 저,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신국판/양장/640쪽/값 40,000원

周易禪解
우익지욱 선사
『주역선해』의 현대적 강설!
우익지욱, 『주역선해』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